



— 臨 終 的 醫 療 —

가톨릭醫大 부속 聖母病院

院長 金 學 仲

臨床醫師로서 가장 Delicate한 問題가 바로 患者에 對한 죽음의 선고라고 할수있다. 不治病에 걸려있는 患者에 對한 病名通告에 關하여는 옛날부터 여러가지 論爭이 많지만 結局 本質的인 問題에는 近接조차 못하고 다만 醫師의 主觀的 實用主義에 立脚해서 回答을 해야한다고 生覺된다. 即「알리느냐? 안알리느냐?」의 問題는 무슨 客觀的으로 義務化한 原則에 基礎를 두는것이 아니고 다만 醫師의 主觀的 判斷에 마진다는것이다」

이런 病의 眞相通告問題는 醫師自身이 Case by Case로 재치있게 解決하여야 한다. 人情 많고 재치있는 醫師라면 언제나 正當한 答辯을 찾는데 窮하지 않을것이다. 가장 理想的인 것은 醫師와 患者間에 「人間關係가 完全히 成立」된 後에 다시 말해서 醫師의 깊은 慈悲心과 同情어린 理解가 患者에게 傳達되어 患者가 醫師에 對하여 最大의 尊敬心과 感謝를 가지게 될때에 비로소 죽음에 對한 眞相을 克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醫師가 病에 對한 眞相通告를 하는데 두가지 相反된 點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는 患者가 죽음을 豫見하고 不安과 恐怖에 떨게하는 不利한 點과 둘째는 죽음을 미리알고 自己死後에 對한 精神的 財產의 整理問題이다.

1. 死期切迫에 對한 病狀通告

지금까지 健康하던 사람이 急作히 不治病에 걸려 數日內로 死亡한다고 假定했을 때를 생각해 본다. 人間은 누구나 自身만은 永遠히 살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있다. 萬一 20年後 또는 50年後에라도 自己 自身の 죽는날을 알고 살아간다면 이 以上 不幸한 일은 없을것이라고 古代의 어

떤 哲人은 갈파하고 있다. 不過數日內에 自己의 生命이 다된다는 通知를 받으면 아무리 聖人君子 라할지라도 絕望狀態에 빠져 나머지 生存期間은 마치 地獄에서의 生活과 같을 것이다. 反面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별안간 죽어간다면 이 患者는 重要한 義務清算을 소홀이하게 된다. 그 義務란 經濟的인 面(負債支拂, 遺言狀作成, 家族將來에 對한 指示等)과 道德的인 面(患者 만이 알고있는 不道德行爲에 對한 補償等) 두가지로 區分된다.

이에 反해서 患者에게 病狀을 날날이 설명해주어 患者에게 經濟的, 良心的 死後處理의 機會를 주어 患者自身은 勿論 周圍사람들에게 道德的, 經濟的 被害를 最少限으로 豫防할 수 있는 것이다. 自古以來로 人間은 親密關係를 맺고있는 周圍사람들의 重大損害를 最少限度로 막아줄 義務를 가지고 있다.

Barnikel氏는 醫師들의 所謂 「慈悲心에 依한 거짓말」을 배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即「病狀通告義務의 根本的이고 原則的인 問題는 運命과 良心과의 關係사이에 놓여있다. 醫師는 一般的으로 患者의 運命을 알고있으면서도 이것을 患者에게 表明하는것을 꺼리는수가 때로는 있다. 그러나 患者는 衷心으로 自己運命에 맞기고 그 運命을 自己가 秩序지을 權利가있고 또 義務가 있다. 이것은 宿命的인것이다. 充分한 理解를 가지고 있는 醫師以外에 누가 敢히 患者에게 最初로 그런 마음의 準備를 시킬수 있겠는가?」

患者가 죽음에 直面해있을때 이것을 患者에게 通告해줄 義務의 原則論에는 다음과 같은 但書가 必要할 것이다. 即「醫師는 患者의 死期接近을 通告해줄 嚴肅한 義務가 있다. 但 이 義務는 醫

醫師自身이 直接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다. 卽 第三者(家族, 親友等)를 通해서 하는 方法도 있다.

萬一 患者에게 病名을 通告함으로써 結果적으로 醫師自身이 重大한 不利 或은 危險을 當하는 등 特別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通告義務를 포기해도 좋다. 이런경우의 例로써 벼락 富者中에는 醫師를 不信하고 恒常 周圍사람들을 自己의 敵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醫師가 萬一 死期切迫의 事實을 通告해주면 卽時 自己辯護士를 시켜서 醫師를 告訴할지도 모른다. 醫師가 最高의 知識과 才能을 가지고 患者를 診療하고 法律上에는 全然 無罪라고 해도 醫師가 法廷에 召喚當하는 그 自體가 不快하고 不名譽 스투운 일이다. 醫師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周圍사람의 不幸을 막을 義務가 있다해도 自己 自身을 危險에 暴露하라는 義務까지는 없는 법이다.

醫師는 또한 그 最高의 知識을 가지고 判斷해서 自己말이 通하지 않는 경우(例를 들면 心神喪失者, 白痴等)와 醫師의 通告로 因하여 患者를 깊은 絶望에 빠지게하여 심지어는 自殺까지할 可能性이 있는 患者에게는 이런 病名通告義務가 免除되어야 한다. 但 醫師가 取扱하기 구차한 神經質的인 患者라고 해서 無條件 이범주에 包含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2. 不治病(癌患者)에 대한 病狀通告

患者가 重症 또는 不治의 疾患으로 只今곧은 아니지만 1~2個月內에 死亡할 것인 診斷이 내린 患者의 症狀通告는 어떻게 할 것인가 癌患者를 例로들어 說明코져 한다.

醫學적으로 癌의 어떤 種類는 特히 早期에 發見해서 加療하면 完治될 수 있는 事實은 屢 多幸한 일이다. 이 說明을 Schwenger氏의 글을 引用하여 보자 「現在子宮頸部癌은 治療條件이 좋을 때는 約 50%가 完治되고 子宮體部癌에서는 豫後가 좀더 良好하다. 이미 潰瘍이 發生한 2,907例中 1,224 (42.1%)例가 完治되었다. 이것은 大端히 좋은 成績이다. 이런 數字를 구태여 列擧하는 理由는 모든 사람들이 子宮癌의 治療率은 事實上 不良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또 一種의 樂觀論이기는 하지만 患者한테 說明할때 두 사람중 한 사람은 完治할 수 있다고 거짓말없이 斷言할

수 있기 때문이다」, 癌이라는 診斷이 醫學적으로 반드시 絶望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이 矛盾을 說明하기 爲하여 이런 統計學的 數字에 基礎를 두어야 할 것이다. 所謂 不治의 癌이라도 比較的 徐徐히 進行하는 時期도 있고 豫見되는 早期診斷의 時期도 있으므로 癌이라는 診斷自體가 決코 죽음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勿論 醫師는 長期間의 努力으로 患者와 充分한 協力態勢를 갖추어야 한다.

法律上으로 볼때 醫師는 專門家로서 患者豫後를 正確히 判斷해야 하는데도 不拘하고 착각으로나 或은 患者의 幸福을 爲한것으로 생각되어 患者의 危險狀態를 過少評價하거나 患者에게 잘못된 希望을 가지게할 경우 醫師는 告訴當할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例로서 한 企業家인 患者를 들었을때 醫師의 잘못된 말만 믿고 財產의 大部分을 長期危險한 企業에 投資했을 경우 患者의 죽음이 豫想外로 빨리 왔을때 相續者인 家族은 큰 損害를 보게되어 醫師의 責任을 물을지도 모른다. 癌患者의 精神狀態는 大端히 陰鬱해지는 것이다. 癌患者가 아닌 一般사람도 어느 時期에 所謂癌 Neurose에 걸리는 때가 있다. 萬一 癌患者中에 醫師가 當身病은 癌이요 하고 明白히 말해 줌으로 因하여 患者는 甚한 우울症에 빠져 結局 自殺의 動機가 되는일도 있다. 反面 患者의 協力如何에 따라서는 實治可能性 있는 癌도 患者가 悲觀한 나머지 正當한 治療를 拒否하는 경우도 생각된다.

癌에 關한 限 여러가지 問題가 山積하지만 醫師倫理上 確乎한 指針이 있어야 한다. 卽 治療 가능한 患者에게는 醫師와의 協力을 確保하기 爲하여 必要한 모든것을 들려주어야 한다. 醫學적으로 治療可能性이 充分히 있을때는 그 病의 特殊性에 對하여 道德적으로 容許되는 범위內에서 그 真相通告를 안해도 좋다. 萬若 患者가 正色을 하고 自己病이 무엇이냐하고 질문했을 때는 醫師는 治療된다는 意味를 強調하면서 癌과 同意語인 腫瘍이라는 말로 答해준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道德的으로나 또는 醫師의 위신에 對하여 甚한 損失이기 때문이다.

不治의 患者에 對하여는 다음과 같은 道德的 原則이 該의된다. 不治의 患者에게는 必要한것은

꼭 알려야 한다. 그로 인하여 患者는 죽음에 對한 準備를 할수있기 때문이다. 이 原則을 說明하기 爲하여 다음 두가지 點을 強調하고 싶다. 第一은 어느 時期에 알릴것인가? 勿論 이 時期란 數字로 表示할 性格이 못된다. 患者가 이 世上最後의 날을 病院에서 맞느냐 또는 집에서 맞느냐 하는것은 患者自身의 自由에 맞겨야 될줄안다. 眞相通告의 時期는 患者의 精神狀態가 充分히 그것을 감당할수 있을때에 비로소 可能하다고 생각된다. 이 眞相通告에 對하여 泰然한가 아닌가는 患者의 性別, 年令, 體格, 教養等은 큰 參考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性格에 많이 關係된다. 患者의 既往의 生活이 사는 보람을 느꼈는가 아닌가 또 比較的 完成에 到達했는가하는 問題가 더 많이 關係되는 것 같다. 精神科醫師인 Wyrsh 氏는 이것을 잘 表現하고 있다. 「人間은 다른 生物과 달라서 單只 體力과 精力의 機能과 障礙만을 問題視하는 것이 아니라 肉體와 精神과는 달리 人間의 體力과 精力은 人間에게 永久的으로 남을 어떤것을 創造할수있는 神의 命令에 依한 것임으로 人生에는 經歷이 있고 自己自身이 스스로 宿命을 알고 相應되는 任務를 하고 目的을 達成하며 일을할 수 있는 意慾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人間은 成熟하고 充實해지며 永遠의 滿足을 얻게되는 것이다. 이런것은 社會的地位의

高下가 問題가 아니라 地位가 낮은 庶民中에도 또는 無學者中에도 그다지 눈에떠지 않는 形態지만 그 地位에 滿足한 生活을 營爲한 者中에서 自己生涯를 滿足한 눈으로 回顧할 수 있는 者만이 죽음은 人間의 當然한 歸結로서 絶望하지 아니한다.

第二의 問題는 어떠한 方法으로 알리느냐 이다. 醫師가 患者에게 眞相通告하는 行爲가 一種의 精神의 守護의 行爲라고 생각되어야 한다. 卽 醫師의 慈愛로운 마음으로 患者를 對하는 方法이다.

名醫 Grote 教授는 말하기를 “醫師는 患者에게 죽음을 認定해주는 것이다”. 이때 醫師는 表面的 慰安으로 患者를 一時的으로 恐怖에서 救해준다는式이 아니고 뜨거운 握手로써 「너는 只今 내가 가야할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라고 慈愛롭고 그리고 確乎한 態度를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말이 必要치 않다. 정말 必要한것은 慈悲心에 넘치는 눈길 그리고 부드럽고 同情에 가득찬 態度가 더 重要하다고 믿는다. 卽 患者는 죽음을 理解하고 自己宿命을 알고 自暴自棄되지 않도록 하며 나가서는 神에 感謝하는 마음으로 最後를 마치게 할 수 있도록 指導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醫師로써 또한 人間으로서 해야할 職責의 하나라고 確信한다.

